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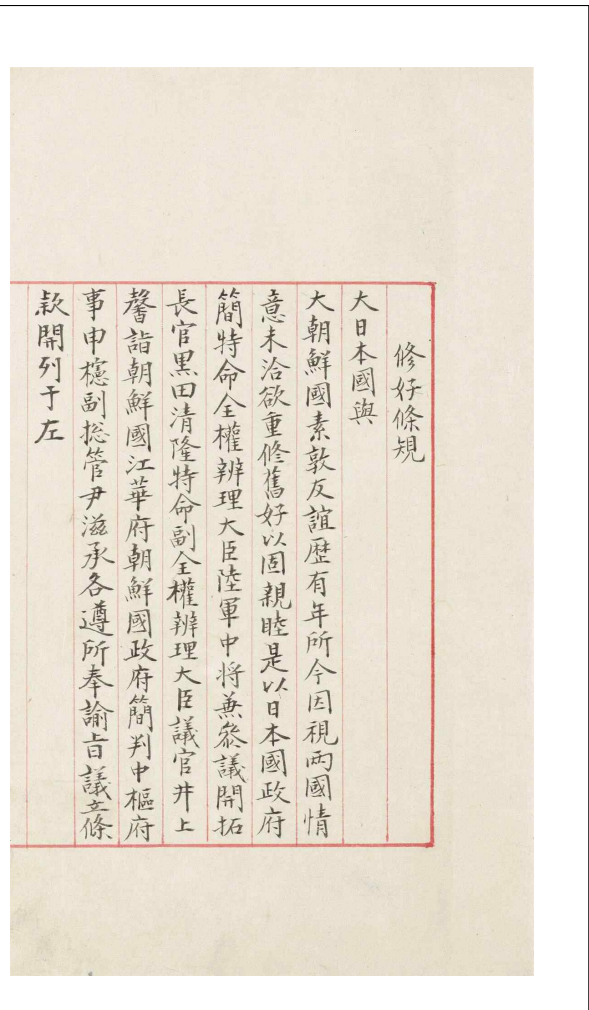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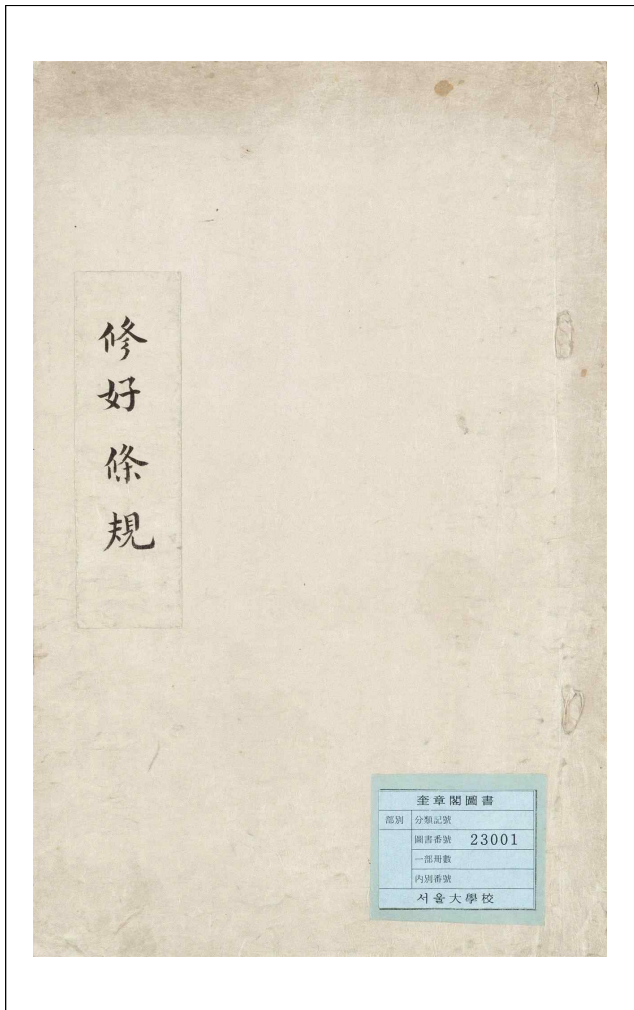
사 진 자 료



1910년 ~ 1917년 덕수궁 돈덕전
(일본 궁내성 소장 창덕궁사진첩)



2023년 재건된 돈덕전



조일수호조규 朝日修好條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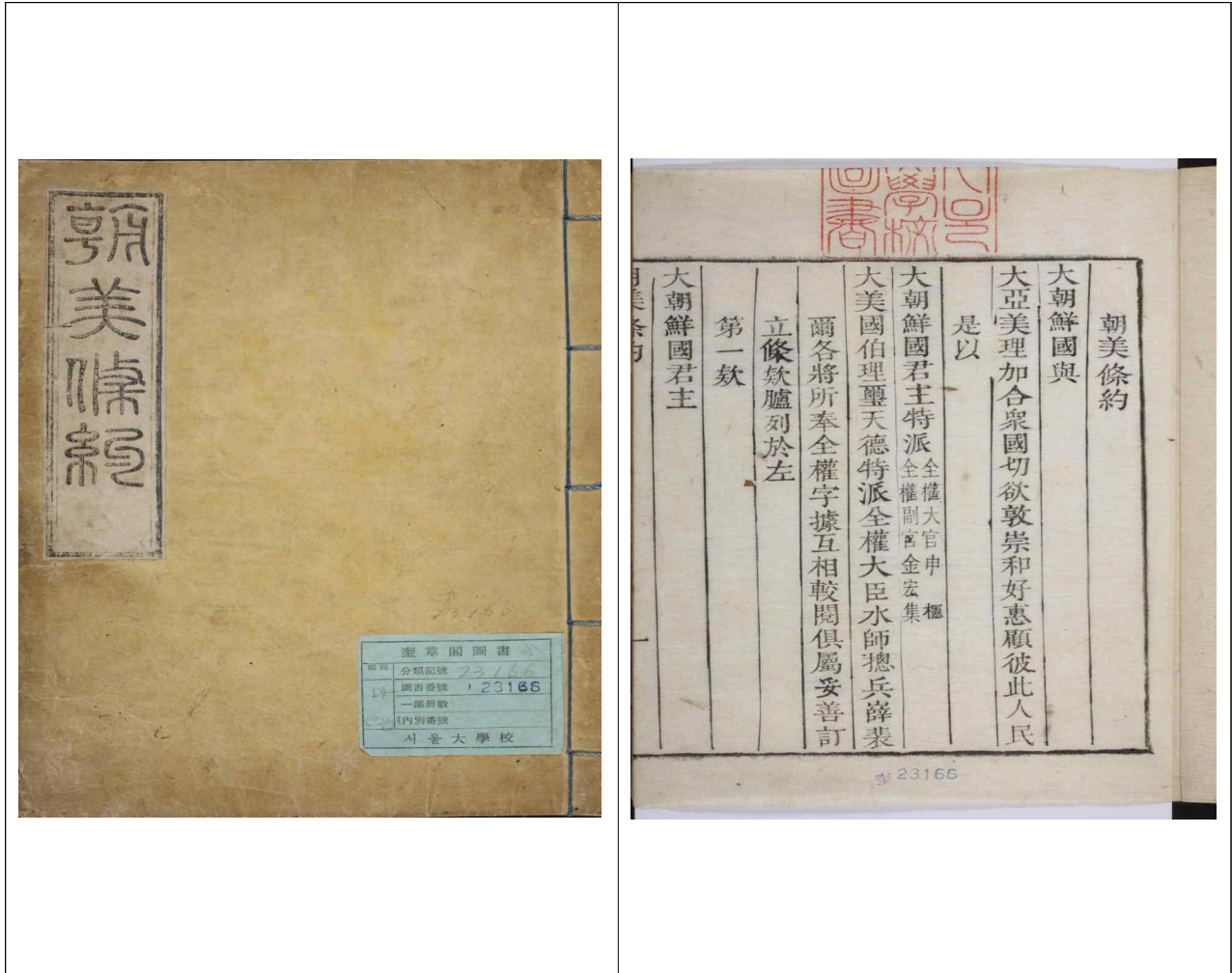
Korea-Japan Commercial Treaty of Amity

1876년 | 종이 | 34.5×22cm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76년(고종 13) 2월 2일(양력 2월 26일) 강화부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통상조약이다. ‘강화도 조약’ 또는 ‘병자수호조약’이라고 부른다. 근대 국제법 체계에서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며,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 조약은 이후 다른 국가들과의 조약 체결에도 영향을 미쳤다.



1876년 조일수호조교 체결장인 강화부 연무당 주위에 도열한 일본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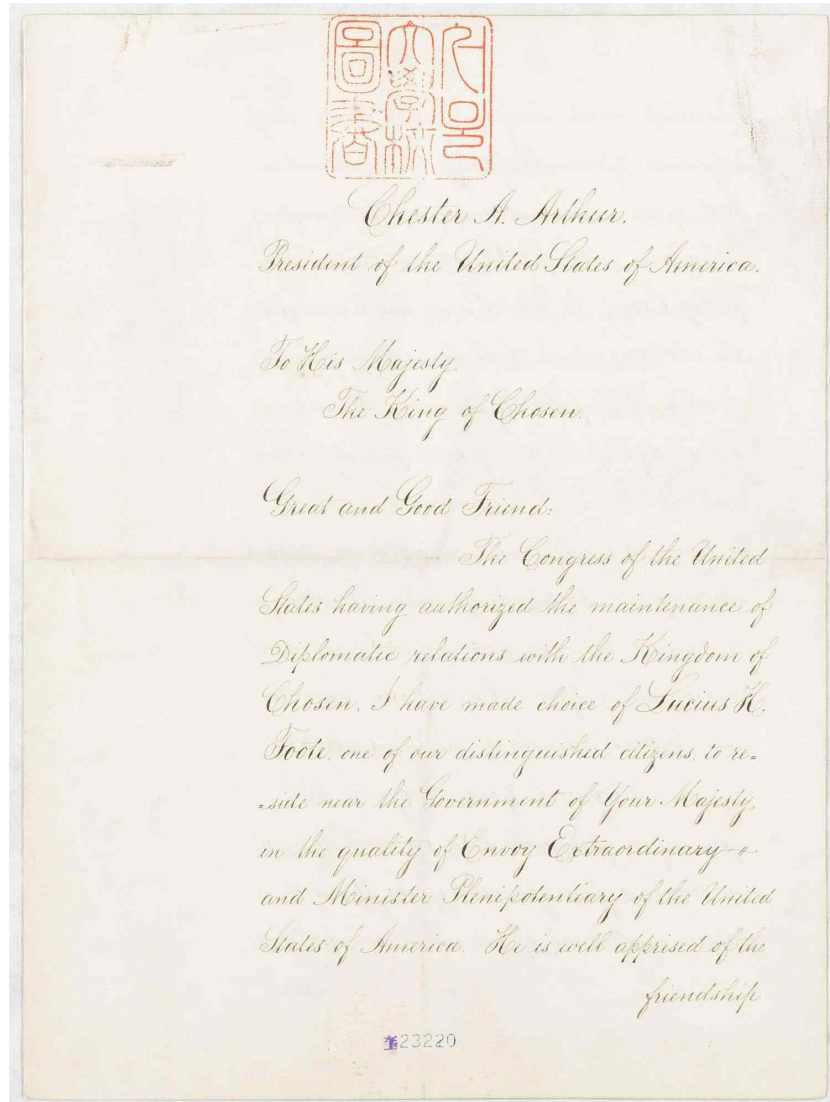


조미수호통상조약 朝美修好通商條規

Copied Document of Korea-United States Treaty of 1882

1882년 | 종이 | 27.8×18.7cm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이 근대 국제법적 체계에서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다. 이 조약은 조선이 국제사회에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미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규정이 포함된 불평등 조약이기도 하다. 조약의 제1조에는 ‘거중조정^{居中調整, good offices}’을 명시해 조선과 제3국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경우 미국이 개입하여 중재한다는 조항을 두었는데, 이는 조선 입장에서 조선의 독립과 자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라 여겨졌다. 제2조에는 ‘공사급 외교관 파견과 공관 설치’ 내용을 명시해 양국 공사관 개설의 근거로 삼았다.



푸트 주조선전권공사 신임장 福德駐朝鮮全權公使信任狀

Certificate of Appointment for Lucius H. Foote as Envoy Extraordinary and Minister Plenipotentiary to Korea

1883년 | 종이 | 26.6×35.5cm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복제품(Replica)

미국 정부가 푸트(Lucius H. Foote 1826~1913)를 첫 조선 주재 전권공사로 임명하며 고종에게 보낸 문서이다. 푸트는 고종에게 보병사 파견을 건의하고 준비과정을 지원하기도 했다. 미국은 푸트를 주청미국공사나 주일본미국공사와 동등한 직급의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해 조선을 청, 일본과 동등한 독립국가로 인정했다.



초대 주조선 미국대사 루셔스 푸트 Lucius H. Foote(1826~1913)



초대 주조선 미국대사 루셔스 푸트 Lucius H. Foote와 공사관 직원들



국새 대군주보 國璽 大君主寶

Seal of the Great Sovereign

1882년 | 은에 도금 | 9.5×9.5×7.9cm | 국립고궁박물관 | 보물(Treasure)

| 복제품(Replica)

1882년에 제작되어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기 전까지 사용되었던 조선 국왕의 인장이다. 갑오개혁기 대외적으로 국가의 주권을 표시하는 용도로 제작하여, 국가 간 비준이나 공식 문서에 자주독립국임을 나타내었다. 격변하는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한 조선의 대응 방식을 상징하는 유물이다.



초대 주미공사 박정양(1841~1905)



초대 주미공사관 서기관 이상재(1850~1927)



서화가이자 초대 주미공사 수행원 강진희(1851~1919)

주미공사 수행원 시절에 <화차분별도>(1888), <잔교송별도>(1888)를 그렸다.



<화차분별도>

화차분별도 火車分別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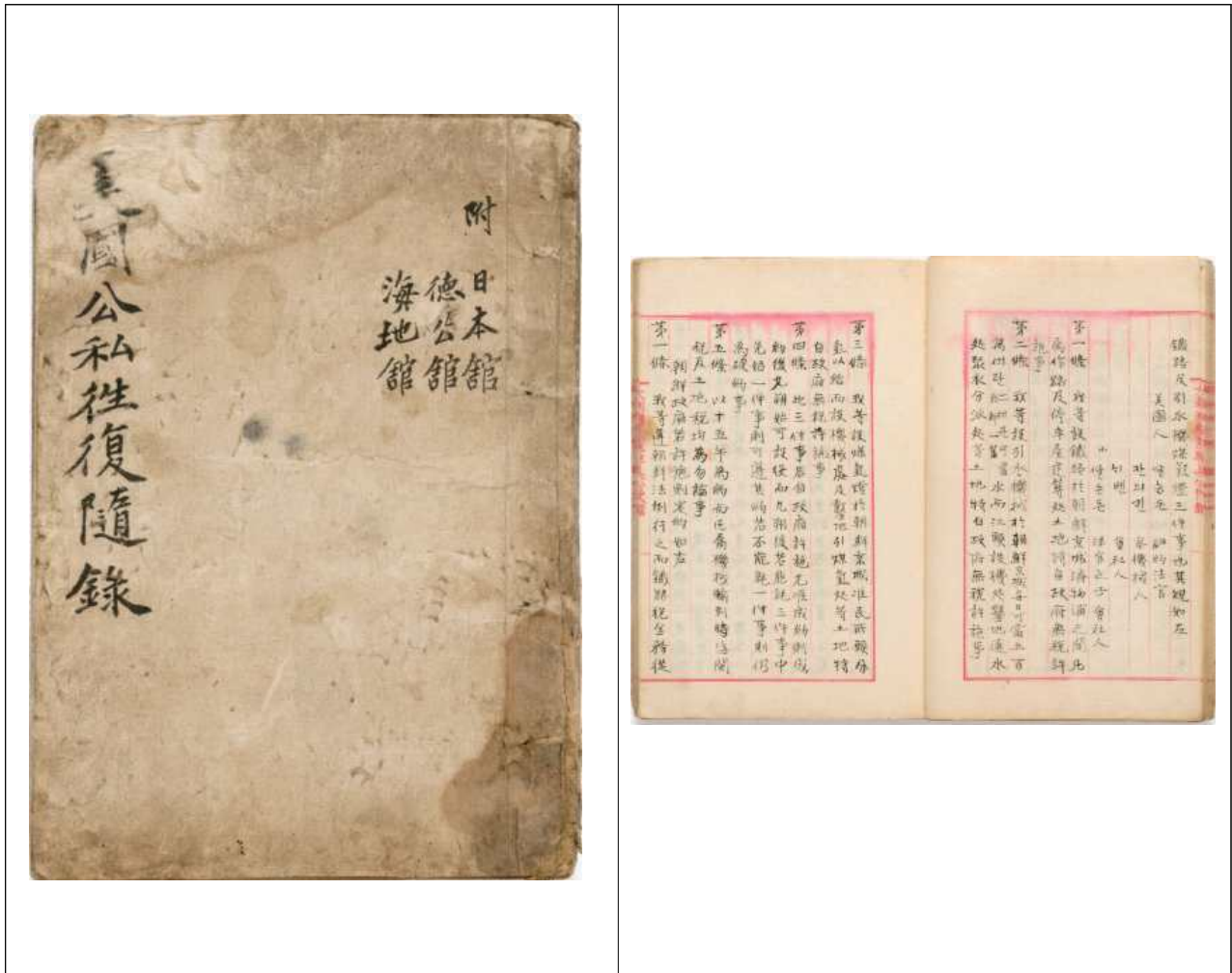
The Landscape of the United States with Trains by Kang Jin-hui

강진희(姜璉熙) 그림 | 1888년 | 종이에 수묵 | 19.5×24.2cm | 간송미술관

서화가이자 초대 주미공사관 수행원인 강진희가 그린 그림으로, 기차가 달리고 있는 풍경을 수묵으로 그렸다. 나지막한 언덕과 첩담을 올린 서양식 건물이 나타나며, 연기를 뿜으며 달려가는 기차의 모습이 보인다. 많은 사람과 물자를 싣고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빠르게 이동하는 기차는 근대화의 기반이자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 그림은 당시 선진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조선정부의 의지와 이를 실현시키려는 주미 조선 외교관들의 노력을 압축하여 보여준다.



초대 주미공사관 일행(앞 열 가운데 공사 박정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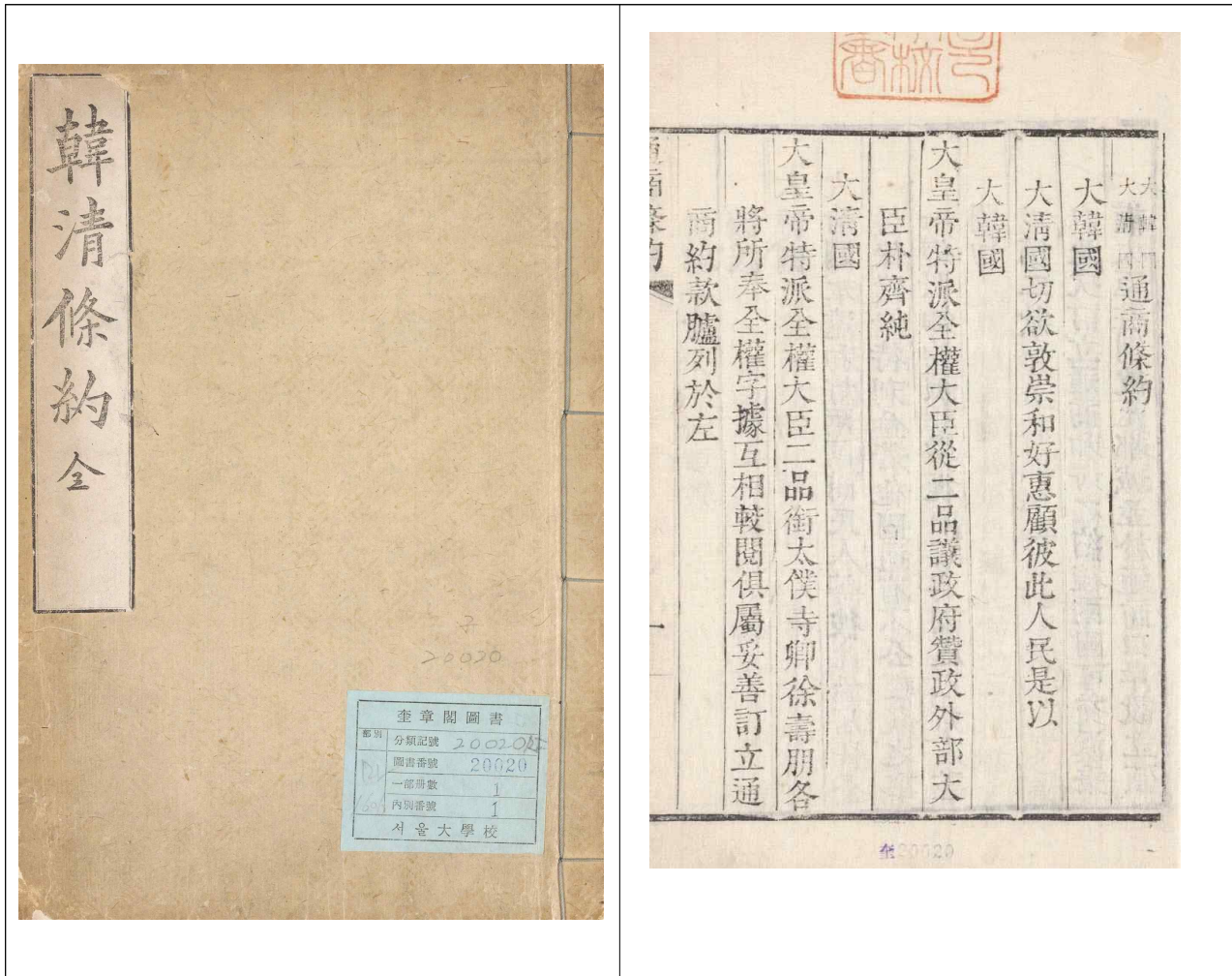


미국공사왕복수록 美國公私往復隨錄

A Collection of Materials Related to Diplomatic Affairs Compiled by the Staff of the Korean Legation

1887~1891년 | 종이 | 24.7×17.8cm | 국립고궁박물관 | 국가등록문화재

초대 주미공사관 서기관 이상재가 정리한 공무 자료이다. 외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외교 문서와 정보를 정리한 글로, 공사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책으로 묶은 것으로 보인다. 초대 주미전권공사 박정양이 미국 정부와 주고받은 문서가 수록되었고, 조선 정부가 주미공사관을 통해 추진하려 했던 사업 관련 문서도 찾을 수 있다.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측과 경인선 철도 설치를 논의했음을 보여주는 계약서인 ‘철도약장’ 초안도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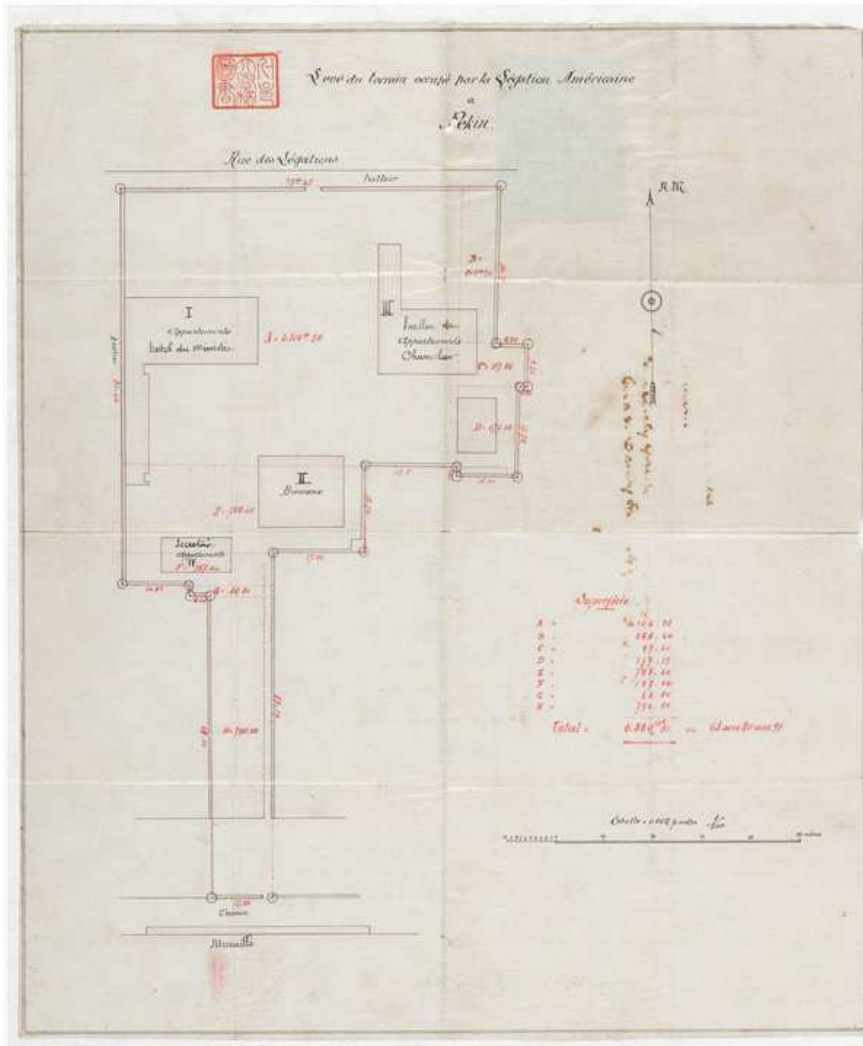


대한국대청국통상조약 大韓國大清國通商條約

Korea-Qing Commercial Treaty

1899년 | 종이 | 33.4×21.4cm | 국립중앙도서관 | 서울시 유형문화재

1899년(광무 3) 9월 11일 대한제국 외부대신 박제순과 청국 특파전권대신 서수봉(徐壽朋) 사이에 체결한 통상조약문이다. 전문(前文), 본문 15개조, 고종의 인준문으로 이루어졌다. 청의 종주권을 규정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과 달리 국제공법에 따른 평등을 원칙으로 하여 중국과 조선이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최초의 조약이다.



주청 조선공사관 도면 (북경소재)



양기훈 혈죽도 족자 楊基薰 血竹圖 簇子

연대미상 | 종이 | 135×71cm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복제품(Replica)

이 족자는 화가 양기훈^{楊基薰}이 그린 혈죽도^{血竹圖}로, 대한제국에 대한 민영환의 충절을 대나무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족자의 상단 오른쪽에 “대한제국 광무 9년(1905년) 11월 30일 충정 민영환이 순국하였고, 1906년 7월 4일에 그가 순국할 당시에 입었던 피 묻은 옷과 칼을 모셔 둔 마루방에서 유족이 네 줄기의 푸른 대나무가 자란 것을 발견했다.”라는 문구가 있다.



서울 진관사 태극기

National Flag of Korea at Jinkwansa(Temple)

1919년 | 직물 | 70×88cm | 보물(Treasure)

2009년 5월 26일 서울 진관사 칠성각의 해체·복원 과정에서 불단과 벽체 사이에서 독립신문류 19점을 보자기처럼 싼 상태로 발견되었다. 일장기 위에 태극과 4괘를 먹으로 덧칠해 그려 넣어 항일의지와 애국심을 강렬하게 나타내고 있다. 진관사 승려로서 독립운동을 하였던 초월初月 동조東照 백인영白寅榮(1878~1944) 혹은 그와 밀접한 연관이 있던 승려가 진관사에 숨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태극기는 우리나라 사찰에서 최초로 발견된 일제강점기의 태극기로서, 불교 사찰이 독립운동의 배후 근거지나 거점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태극기와 함께 발견된 독립신문류에는 태극을 ‘힘과 사랑을 토대로 자유와 평등을 온 세상에 실현해나가는 뜻’으로 새롭게 해석했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나라를 되찾는데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의 자유와 평등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그렸다. 오늘날 부활한 대한은 제국주의와 식민의 역사, 대립과 증오의 시대를 넘어 교류와 협력, 그리고 영원한 우정의 시대로 나아가려 한다. 이것이 돌아온 태극기에 담겨 있는 승려 백초월의 염원이며,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세계와 교류하려 했던 대한제국 외교의 꿈이다.